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63호 [루게 제 24576호] 주제 103 (2014)년 6월 12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지!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모스크바

###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뽀찐각하

나는 로씨야련방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오늘 로씨야인민은 당신의 령도밑에 나라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고 경제의 현대화와 국방력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습니다. 나는 친선과 협조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조로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확대발전되고 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이 전통적인 관계가 쌍방사이에 합의를 공동문건들의 정신에 맞게 앞으로 더욱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로씨야의 존엄과 리익을 수호하고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를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주제 103(2014)년 6월 12일 평양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각께서 내가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따뜻한 축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각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언제나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원수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4년 6월 8일 디마스끄

## 조선로동당건설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만마리트 모출판사 총사장은 마음 마음 나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 조국과 인민의 번영과 행복, 인류사주위업실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시었다. 그이께서 쌓아올리신 업적은 영원 불멸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위하여 조선인민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날마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반드시 강성국가건설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것이다. 집회참가자들은 《당창건기념탑》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을 감상하였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1964년 6월 19일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 당을 명실공히 그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시고 빛나게 실현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주석의 혁명사상, 주제사상을 조선로동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제시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었다. 그이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정치체제가 확고히 선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강화발전되어왔다. 베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소 책임자인 꼬포누기자대학 학장 바스칼 쥘레는 다음과 같이 토론했다. 그이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정치체제가 확고히 선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강화발전되어왔다. 베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소 책임자인 꼬포누기자대학 학장 바스칼 쥘레는 다음과 같이 토론했다. 그이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정치체제가 확고히 선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강화발전되어왔다. 베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소 책임자인 꼬포누기자대학 학장 바스칼 쥘레는 다음과 같이 토론했다. 그이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정치체제가 확고히 선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강화발전되어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5월 28일 베닌 꼬포누기에서 전국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주체사상연구 베닌 국위원회, 베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꼬포누기자대학, 아보메이 칼라비종합대학의 인사들과 공중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연구 베닌 전국위원회 위원장 헝수 꼬포누기 《조선로동당건설에 쌓아올리신 김정일령도자의 불멸의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하였다.

사람과 믿음의 인덕정치, 광복정치를 펼치신 그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세계적인 정치풍파속에서도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고 온 사회를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전환시켰으며 평범한 날에나 졸업한 날에나 변함없이 광범한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불멸의 당으로 위력발전시킬수 있다. 베닌 아보메이 칼라비종합대학 교수 보나방튀르 보이는 다음과 같이 토론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함도해나가는 강위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발전시키시었다. 그이께서는 특히 지난 세기 90년대 변천된 환경과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군정치를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의 령도적정치조직으로 더욱 강화하시었다. 선군을 당과 혁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문제를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신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를 사회주의위업의 주축으로 내세우시고 끊임없는 선군정쟁을 이어나가시며 인민군대가 선군혁명의 기수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다.

##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자

### 막장마다에 공격전의 기상 내려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판결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발전설비조립공사를 힘있게 벌이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발전설비조립공사의 정시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설비조립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이 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중요공사대상의 하나인 발전기실 건축공사를 짧은 기일에 끝내는데 2호발전소 1호기 발전설비조립을 본격적인 단계에서 힘있게 벌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을 쏟으며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소건설

### 영농부속품생산성과 확대

농업전진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전,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새겨안은 기계공업성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영농부속품생산성과 확대를 위하여 힘과 지혜를 합쳐 생산량을 높이고있다. 평양 3 26 전선공장과 경성애자공장, 안주철원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이미 통신선과 전화선, 결선연직, 철연철강 등 영농부속품을 계획대로 농촌에 보내주었으며 그 수세를 늦추지 않고 영농부속품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영농부속품생산의 큰 몫을 맡고있는 료진기계공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더욱 세계적 지평을 넓혀가고있다. 료진기계공업관리국의 중요직장들에 내려간 관리국일군들은 이곳 일군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생산량을 높이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성의 일군들은 농촌에 보낼 영농부속품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판결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발전설비조립공사를 힘있게 벌이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발전설비조립공사의 정시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설비조립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이 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중요공사대상의 하나인 발전기실 건축공사를 짧은 기일에 끝내는데 2호발전소 1호기 발전설비조립을 본격적인 단계에서 힘있게 벌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을 쏟으며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소건설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발전설비조립공사의 정시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설비조립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이 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중요공사대상의 하나인 발전기실 건축공사를 짧은 기일에 끝내는데 2호발전소 1호기 발전설비조립을 본격적인 단계에서 힘있게 벌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을 쏟으며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소건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판결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발전설비조립공사를 힘있게 벌이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발전설비조립공사의 정시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설비조립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이 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중요공사대상의 하나인 발전기실 건축공사를 짧은 기일에 끝내는데 2호발전소 1호기 발전설비조립을 본격적인 단계에서 힘있게 벌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을 쏟으며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소건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판결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발전설비조립공사를 힘있게 벌이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발전설비조립공사의 정시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설비조립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이 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중요공사대상의 하나인 발전기실 건축공사를 짧은 기일에 끝내는데 2호발전소 1호기 발전설비조립을 본격적인 단계에서 힘있게 벌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을 쏟으며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소건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판결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발전설비조립공사를 힘있게 벌이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발전설비조립공사의 정시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설비조립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이 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중요공사대상의 하나인 발전기실 건축공사를 짧은 기일에 끝내는데 2호발전소 1호기 발전설비조립을 본격적인 단계에서 힘있게 벌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을 쏟으며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소건설

## 발전설비조립 적극 추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판결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발전설비조립공사를 힘있게 벌이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발전설비조립공사의 정시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설비조립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이 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중요공사대상의 하나인 발전기실 건축공사를 짧은 기일에 끝내는데 2호발전소 1호기 발전설비조립을 본격적인 단계에서 힘있게 벌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을 쏟으며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소건설

## 현대화공사를 힘있게 다그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판결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발전설비조립공사를 힘있게 벌이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발전설비조립공사의 정시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설비조립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이 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중요공사대상의 하나인 발전기실 건축공사를 짧은 기일에 끝내는데 2호발전소 1호기 발전설비조립을 본격적인 단계에서 힘있게 벌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을 쏟으며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소건설

## 제강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판결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발전설비조립공사를 힘있게 벌이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발전설비조립공사의 정시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설비조립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이 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중요공사대상의 하나인 발전기실 건축공사를 짧은 기일에 끝내는데 2호발전소 1호기 발전설비조립을 본격적인 단계에서 힘있게 벌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을 쏟으며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소건설

## 현대화공사를 힘있게 다그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판결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발전설비조립공사를 힘있게 벌이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발전설비조립공사의 정시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설비조립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이 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중요공사대상의 하나인 발전기실 건축공사를 짧은 기일에 끝내는데 2호발전소 1호기 발전설비조립을 본격적인 단계에서 힘있게 벌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을 쏟으며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소건설

# 《당세포의 숨결이자 당의 숨결이고 당세포의 목소리이자 당의 목소리이며 당세포의 모습이자 당의 모습입니다.》 김 정 일

## 영광의 50년, 불멸의 당건설업적

### 전당의 당세포들을 선군혁명의 전위대로

강성국가건설전투를 들끓는 이 땅 어디나 조선로동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들이 있다. 주제혁명위업의 빛나는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떠밀어나가는 수천수만의 당세포들은 참으로 긍지롭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장장 수십성상에 달하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우리 당영도사는 탁월한 영도권으로 당세포들을 쇄소리 내는 기층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서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력을 비상이 강화한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당과 혁명발전에서 당세포가 차지하고있는 위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당세포를 강화하는데 언제나 큰 힘을 쏟아왔습시다.》

당세포의 강화발전은 위한 고귀한 지침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지지와 업적이 빛날채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당세포를 강화하자》를 비롯한 로작들은 어제도 오늘도 당의 기층조직의 강화발전은 위한 고귀한 지침으로 되어 커다란 위력을 떨치고있다.

고요한 서해에서가 아니었다. 한 평성 서해에서가 아니라 우리 장군님께서 언제나 계신 곳은 사회주의 수호전으로 들끓는 전투장들이었다. 지난 세기 일부 사회주의정권당들이 무너져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빚어졌던 그 시기 혁명적당건설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 헌신의 자욱을 새기며 전당의 모든 당세포들을 조직성과 규율성, 전

투력이 강한 전위대로 더욱 강화발전시킬 고귀한 사상리론적지침을 마련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당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의의를 증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80(1991년) 5월에 조선로동당 제 1차 세포비서대회를 조직진행하도록 하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당세포를 강화하자》를 보내주시었다. 그에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83(1994)년 3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 2차 세포비서대회에서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당세포로 만드는것을 우리 당의 구호로, 당조직들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심과업으로 제시하시었다.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당의 강화발전에서 선차적인 힘을 넣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 3차 세포비서대회를 의의있게 조직진행하도록 이시시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회를 모든 세포비서들이 당세포를 우리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전위조직으로 훈련히 꾸리고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당의 강화발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는데 총적목적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시었다. 대회가 진행되는 나날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안부부터 물으며 그이를 대회를 꼭 모실것을 간절히 녀민하였다. 애오라지 위대한 장군님만을 그리며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불같은 충정을 소중히 바치며 그들이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뜨거운 열정에 우리 당세포비서들은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며 성실하게 일하는 순박한 사람

들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순박한 사람들!  
세상에 이보다 더 고귀하고 숭고한 부름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토록 열렬한 사랑과 믿음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세포비서들을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었다.  
우리 당세포비서!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정답게 울리는 친근한 부름이다.

오늘도 그 부름을 되새길 때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나 우리 당세포비서들이 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사업과 생활에서 대우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만단사연들이 들려져진다.

언제인가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나는 우리의 모든 당세포비서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로부터 《우리 당세포비서》, 《당세포비서야마이》로 친근하게 불리워지기를 바란다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가 담긴 말씀을 하시었다.

평범한 한 당세포비서를 영성의 언덕에 높이 세워주시신 위대한 은인의 손길이 숨쉬며 어려온다.

김유봉, 그는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만날수 있는 평범한 한부, 당세포비서였다. 그는 불같은 애국의 열정안고 당원들과 한부들을 석탄증산으로 불리워오며 석탄산을 높이 쌓았다. 그 나날에 당세포를 전당의 당세포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당세포로 만들었다.

그의 애국의 마음과 소행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고 그대는 온 나라가 다 아는 당세포비서로 내세워주시고 영성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당세포들의 강화발전이 깊은 관심을 들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탄광에 애국의 마음과 맘을 소중히 바쳐가는 평범한 한부인 당세포비서 김유봉동무들은 온 나라 인민들과 한부들, 당세포비서들이 따라배워야 할 시대의 영웅으로, 당세포비서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시었다.

그것이 어이 김유봉당세포비서만이 받아안은 영광이겠는가. 이 땅의 유명 무명의 당세포비서들이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속에 부된 삶을 누리며 당의 위업의 전진과 승리를 위해 당과 마음을 다 바치는것이 내 조국의 긍지와는 현실이다.

엄혹했던 1990년대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중앙통신사 5구역 2세포를 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당과 운명을 함께 하는 당세포의 본보기, 전형단위로 내세우시어 전당에 일평단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전투력있는 당세포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게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영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덕천탄광 사동정 고속도로건설도 당세포 당원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믿음을 친필을 새겨주시었다.

참으로 맑고맑은 격동적인 화풍들은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시고 그들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당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혼연일체의 화풍이다.

우리 장군님 한평생 그토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전당의 당세포들의 강화발전과 함께 당의 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힘차게 고무추동한 조선로동당 제 4차 세포비서대회.

력사적인 대회에서 하신 당세포비서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이 조국세포비서들과 당원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의 가사에

### 당비를 바치시던 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던 어느날이었다. 당세포위원장인 드리는 생활비부름을 받아드시고 잠시 생가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생활비를 받았으니 당비부터 바쳐야겠다고 하시며 자신의 당원증을 꺼내려고 하시었다. 세포위원장은 그이께서 보시던 일을 마저 끝내고 후에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바쳐도 된다고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서 울당비를 바치시던 날에, 무리 비벼도 생활비가 나왔으면 당비부터 들어야 한다 하시며 품속에 소중히 간수하던 당원증을 꺼내드셨다. 그러시고 세포위원장에게 오려려 한방에 이 새겨지었다.

그이의 모습은 위대한 당원의 모습으로 일군의 심장에 깊이 새겨지었다.

### 스스로 받으신 당적분공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현치지도를 보라하고계시던 때의 일이다. 그토록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는 속에서도 당적분공을 수행하시던 신뢰와 믿음의 신자료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은 장군님께서도 꼭 분공을 받으시고 수행해야만 하는가 하는 자기의 심정을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으시었다. 당원! 일군의 가슴은 한없이 후더워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세포당원들과 떨어져 생활하다보니 할수 없이 이렇게 월간계정제를 종합하는 방법으로 당적분공을 수행하는수밖에 없다고 하시며 자료철을 그에게 보시었다. 자료철의 갈고갈고에는 언제나 평당원의 자애와 림장에서 당적분공을 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품도가 깊이 어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처럼 바쁘신 나날에도 이렇게 당적분공을 위한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었다.

본사기자 김 인 선

몰수모여주시는 당적분공의 숭고한 모범

### 자신도 당세포에 소속된 당원이라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당에 혁명적이며 자각적인 당적분공을 펼쳐서 확보하도록 하고 친히 그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원래 당원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혁명을 위하여 자진하여 당에 들어온것만큼 마땅히 당적분공을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얼마후에 있는 일이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소속되어 당적분공을 하고계시는 당세포에서는 자녀요양문제 토의안건으로 당세포총회를 가지었다. 반공 회의를 가폐단 후였다.

마침 그 장소에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세포당원들이 모인것을 보시고 무엇을 했는가고 물으시었다. 세포위원장이 세포총회를 하였

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알리지 않았는가고 제차 물으시었다. 세포위원장은 토의안건이 자녀요양문제이고 또 위대한 장군님께서 매우 바쁘시므로 여러가지로 생각하건 끝에 알려드리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리었다.

위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세포위원장등은 당세포사업을 당적분공이라고 하시면 안되고 당세포사업은 당세포사업으로 하는것이 옳다고 하시며 자녀요양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일이라도 용당 세포안의 모든 당원들을 참가시켜야 하지 않는가고, 그것이 세포위원장의 의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었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도 당세포에 소속된 당원이라고 하시며 용당 세포에서 당회의를 할 때에는 자기 당원들에게 알릴 때에야만 간곡히 이시시켰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에는 높고낮은 당원이 따로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당원은 누구나 다 오직 한가지 규율에 복종하여야 하며 평등한 자격으로 자기가 속한 당세포에 의거하여 당적분공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다시금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그때까지만도 일부 당원들은 어찌 당원이라는 지위사업이요, 긴급한 사업이요 뭐요 하면서 세포총회에 한두번 참가하지 않는것을 있을수 있는 일로 여겨왔었다. 세포위원장 역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세포총회를 조직진행해왔던것이다.

자신을 평범한 당원들속에 세우시고 당적분공에 대한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원칙적이고도 겸허한 품도에 세포위원장과 세포당원들은 크나큰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본사기자

### 깊이 새겨주신 당초급일군의 임무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과 강한 조직성, 규율성을 지닌 쇄소리나는 전투단위로 위력떨치는 우리 당조직들은 언제나 당세포비서들이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세포비서들은 언제나 당의 믿음과 기대속에서 살며 일한다는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맑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어느때 정일 대소환의 계절에도 현치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미전에 한 농장포전에서 만나시었던 농장원들을 다시금 만나게 되시었다.

그가 당세포비서모임이 있어 리당 위원회로 가는 길이라는데는 이리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세포비서동무구만라고 하시며 세포비서사업을 해주시며 언제나 되게 하고 물으시었다.

그러시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오랜 기간 당의 강화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오는 당세포비서들은 당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신임을 잊지 말고 일을 더 잘하여야 한다고 고무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리적으로 당세포가 얼마나 되는가를 물으시고 나서 우리 당은 세포로 이루어졌으며 당의 모든 활동이 세포를 통하여 실현되기에때문에 당세포비서들이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할 때 우리 당은 보다 위력있게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에서는 당세포비서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는 당의 신임과 기대가 클데 그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고있는것이 안타깝다고 그이께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에게 언제나 그런 작과 책임감을 가지게 일

하면 안될 일이 없다고 고무해주시었다. 이어 작업장에 당원이 몇명이나 있는가를 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만하면 당원력량이 적지 않다고 하시며 당세포비서는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이시시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농촌당세포비서들은 무엇보다도 세포안의 모든 당원들이 나라의 쌀들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농촌당세포비서들의 임무와 사업방향을 밝혀주시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그는 당원들과의 사업도 잘하고 농사도 더 잘 짓겠다고 그이께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를 믿으며

린 눈길로 바라보시며 앞으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더욱 높여 리를 잘 꾸밀때 대해서도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손을 들어 주변의 밭과 풀찌기들을 가리키시며 오를 들어나오 이리 리는 농촌정리들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 농촌체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그러자면 나라의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차디한 추위속에서도 농촌당세포들의 강화발전을 위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가우르르는 그의 가슴속에서는 굳은 맹세가 불타올랐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당세포를 더욱 튼튼히 꾸려 당세포비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가렵니다.

본사기자

## 애국애로 부르는 열혈혁명가의 불같은 삶

###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의 혁명생애를 더듬으며

혁명의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 후대들을 위하여 온몸을 다 바쳐 불같이 싸우시다가 19살 꽃나이청춘을 아낌없이 바치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 조국과 민족, 혁명을 위한 길에 청춘을 바치시!

이런 인생관을 생의 좌우명으로 간직하신 김철주동지이시였기에 시련이 앞을 가로막는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주저와 비탄을 모르고 오직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시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력사는 자기 인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의 업적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이 땅에 땅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주제 5(1916)년 6월 12일 만경대에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철주동지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강반석여사의 둘째아들로 탄생하시었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만경대 가문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넋을 그대로 이어받으시며 성장하시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힘찬 투쟁의 가시던 불길들을 헤쳐나가시는 부모님을 따라 일찌기 고향 만경대를 떠나시어 강동, 평강, 팔도, 무용 등지에서 과판팔로 한 어린시절을 보내시면서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실명과 불행을 뼈저리게 체험하시었고 일제에 대한 끝없는 증오와 항거의 정신으로 가슴 불태우신 김철주동지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극진한 보살핌은 김철주동지에게 있어서 혁명의 진리를 체득하고 불굴의 투쟁정신과

강의한 의지, 고상한 품도를 소유한 참다운 혁명가로 성장하게 한 자양분이었고 원동력이었다.

김철주동지는 주제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첫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혁명을 이끌어 나갈 영도자로 받들고 따르시였으며 수령님께서 결심하신 우리 나라에서의 첫 선군혁명조직인 새소년동맹의 핵심성원이 되어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었다.

군중계몽을 위한 연에선전활동과 《새날》신문의 발간, 매포사업에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책임적으로 맡아수행하신 김철주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적영향을 받으며 참된 혁명가로 자라나게 되었다.

김철주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헤어지시던 김철주동지의 마지막모습이 추억깊이 되새겨진다.

어머니이신 강반석여사의 명전에서 몸이 찢겨 가다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손에 무장을 들고 부모님의 생전의 뜻을 기어 이 실현할 비장한 맹세를 다지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 멀리 방구아까지 가시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장투쟁을 강화발전시키시려면 공청대회를 열어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김철주동지에게 공청사업을 본때있게 내밀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그리하여 김철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가슴아픈 선택의 정을 나누게 되시었다.

자신도 모르게 고여오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애쓰시는 위대한 수령님께로 다가가시어 수령님의 손을 조용히 잡았던 김철주동지께서는 소사하의 토기점 팔로 결음을 옮기시었다. 유산하고 친한 아들인 방구아의 이름없는 못에서 쓸쓸한 작업의 인사를 나누신 김철주동지의 모습이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사랑하는 동생의 마지막모습으로 될줄 그 어이 알았으랴.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철주동지의

한생에 대하여 만일 그때 내가 철주의 철을 들어주었다면 동생은 스무살때 죽지 못한 나이에 일찌기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런지도 모른다. 실로 불같이 살다가 불같이 가버린 인생이었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었다.

불같은 생애, 바로 여기에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의 한생이 집약되어 있다.

김철주동지의 혁명생애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실천투쟁속에서 더욱 빛채를 띠고 있었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대로 공청사업을 즐기며 벌려나가시였으며 총을 잡고 일제놈들을 쳐부수고있는 자의의 마음으로 함께 담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시었다. 공청사업을 벌리시던 나날에 있는 일이다.

그이께서 키워내신 15명의 공청원들이 유격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그런데 무장이 없는것이 문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유격대로 가는 공청원들이 자재로 무장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초구에 주둔하고있는 위만군의 무장을 해탈해 대담한 결단을 내리시었다. 전총 몇자루를 가지고 보초소로 무장한 30여명의 위만군을 무장해제시킨다는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철주동지의 치밀하고도 대담한 계획과 유능한 정찰, 불의적이고도 결단성있는 전투행동으로 하여 습격전투는 승리적으로 끝났으며 공청원들은 로획한 총을 메고 보무당양회 유격대로 떠나게 되었다.

김철주동지의 투쟁정신과 무장투쟁정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2월명령구들의 예선 내용인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중대인 반일투쟁투쟁의 사업에 참가하는데서 높이 발휘되었다.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에서 거듭 만류하는 동지들에게 김철주동지께서는 지금은 위험과 곤난

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고 하시며 중국인 반일부대에 대담하게 뛰어들어 립기용면의 지략으로 끝까지 그들을 만일의 길로 되돌려주시었다.

조선사람이라면 덮어놓고 적대시하던 반일부대두령이었던 서구오는 후날 공산당에 입당하여 위대한 수령님앞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는 자리에서 김철주동지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오늘과 같은 날을 맞이하지 못했으리라고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다.

일제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는 대전투, 푸르히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도 김철주동지께서는 수많은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시었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총포란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전투를 지휘하기도 하고 적원이 비탈치는 돌격전의 앞장에 서서 막아서는 적병들을 쓸어넘기며 남짓 적진에 뛰어들기도 하시었다.

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될 때마다 반일부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속에서는 《김철주동지는 참으로 용감하시이다.》, 《항일유격대는 무적의 부대이다.》라는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다.

혁명적신념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던 김철주동지께서는 주제 24(1935)년 6월 14일 처창근방에서 불의에 맞닥뜨린 적들과의 싸움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시었다.

조국해방의 역사적갈고에 뚜렷한 생의 자욱을 남기신 김철주동지의 불굴의 모습은 오늘날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빛을 뿌리며 최후승리의 길로 부르고있다.

우리의 찬만 군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도따라 선군조선의 번영과 함께 열어나가 이 땅에 있어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것이다.

채 히 성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기고있다. —장산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찍음

### 한장의 전투소보를 보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 영도사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절저한 반제자주, 끝없는 애국열사의 력사이며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 대한 절대적책임과 전이비사상으로 수놓아진 숭고한 믿음과 사랑의 영도사입니다.》

어느때 5월의 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그마한 한장의 전투소보를 받으시었다. 그 전투소보는 연백의 어느 한 농장에 내려왔던 한 일군이 가지고온것이었는데 사연이 즉 이리하였다.

협동원에 달려와 모내기전투를 성실성으로 도와주셨다는 인민군원들을 만나고 그들의 철심도 돌아보던 그 일군은 벽에 붙어 있는 전투소보를 보게 되었다.

전투소보에 씌여진 《우리가 다 말자》라는 제목이 인상적이였다. 그말에 씌여진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농업전진도 우리가 다 맡아 고난의 행군의 예로는 승리자가 되자!》라는 글말은 인민군원들의 사상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깊은 감흥은 받은 일군은 그것을 가지고 올라와 위대한 장군님께 올리던것이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전투소보를 보고 또 보시며 깊은 생각을 하시었다. 자기들의 마음과 맘을 소중히 품은 농장병들께 철심 중요한 가을을 기르며 전투소보를 써내려갔을 이름모를 병사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그이의 안광에는 미소가 어려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에게 정치사업은 어디에서

나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대하들어서도 이렇게 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일군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한장의 전투소보에서 선군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의 전투적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시대의 앞장에 서고나와 시련을 돌파해나가려는 미더운 병사들의 불같은 마음과 의지를 읽으시고 정치사업의 내용과 형식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에 따라뵈려 인민군원들의 마음이 담긴 한장의 전투소보는 군민들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위훈창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탄지게 하는 선진성들의 귀중한 불꽃으로 되었다.

본사기자

# 그의 심장은 항일유격대나팔소리와 함께 오늘도 고동친다

## 평안남도당 위원회 선전선동부장이었던 리성길동무의 고결한 삶을 놓고

지난 5월 21일, 생을 마치는 부장 리성길동무를 애리게 부르며 평안남도당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눈물만 흘리지 않았다. 리성길동무의 몫까지 합쳐 도당의 전부장들마저 항일유격대나팔소리가 더 힘차게 울리게 할 작정을 굳게 가다듬었다.

불치의 병을 앓으면서도 당사 상사업에 온념을 쏟아부었던 그는, 물론 생의 마지막까지 보여준 그의 모습이 가슴을 팡팡 울리던 것이다.

운전하기조차 힘든 몸이었지만 강한 정신력을 지니고 평생에 높이 모신 어머니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판리사업정형에 대하여 로해하고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경다해 모셔달라고 절절히 부탁한 리성길동무였다.

### 열번 다시 변치 않

리성길동무가 작전하고 전개한 사업들을 파고들어보면 철저히 수형질사용위로 일관되어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도당 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으로서 성장하면서 자기 수형, 자기 명도자의 위대성과 고풍을 배우고 그 깊이 절감한 그는 수형질사용위를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갔으며 여기에 언제나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었다.

중산군 석대산의 자연바위에 새겨져 온 천만가사를 꼽아올려주자 《열세의 애국자 김정길장군》이라는 거대한 글밭은 리성길동무의 열화와 같은 충정을 말해주는 증거자료로 되고있다.

3년전 5월 그 자연바위에 철세위원의 존함글밭을 새기는 작업이 제기되었을 때였다. 총길이가 120m나 되고 존함글밭의 높이가 10m, 너비 5.5m, 길이 1.4m 되는 글밭을 새겨야 하는 그 작업은 실로 방대하고 어려웠다. 게다가 수심m의 절벽에 올라가 자연의 온갖 정물을 이겨내며 공사를 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작업조건도 한말할수 없이 불리했다.

그런데 리성길동무가 주저없이 맡아나섰다. 그는 이런저런 타산에 앞서 당선전일군이 사야 할 위치를 먼저 생각했다. 대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의 사상 일군들은 한사람한사람이 다 원수들이 한개 사단이나 단 부락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50대의 황창나이이 우 리를 떠나갔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생의 메아리는 참으로 크다. **《우선 사상 선전선동부 지도원은 사상을 시작하는 평안남도당 선전선동부 지도원, 파장, 부 부장을 거쳐 부장으로 사업해온 20여년...》**

당선전일군으로서 그가 적어 온 자유자유의 오늘의 혁명적인 사상공세에서 우리 당사일군들을 힘있게 추동하는 삶과 투쟁의 귀중한 거울로 되고있다.

### 애려난대도

을 교양하고 이끌어 나갈 사명을 지닌 당선전일군에게 있어서 철세위원을 청송하는 만민대개의 글밭을 새기는 데 헌신하는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는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웠다.

그는 《삼들 모르는 석대산》이라고 그쪽 주민들이 말했듯이 공사장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부장, 화신신선전선동의 활무대로 전진시켜왔다. 지난 조국해방전쟁기 인민군공수들이 121고지에서 적사공을 끌어올리 었듯이 압축기, 발대목, 발판들을 비롯한 건설물들을 경사가 심한 석대산으로 옮긴 상황에서 끝까지 끈기있게 붙여올렸다. 평양의 하늘가에 활활 타오르는 주체사상탑의 봉화를 가리키는 돌계단들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전진실적을 강행군을 계속 시켜주었고 때로는 눈사막으로 불려온 정도로 돌가루를 하얗게 뒤집어엎은 착암을 하였다.

온몸 일어난 열증하던 나머지 한복을 삼하고 주정열까지 잃게 되었던 현장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전투를 중단없이 지휘 하였다.

돌계단들속에서는 철세위원에 대한 그리움의 힘이 남김없이 폭발되었다. 예전했던것보다 공사가 두달이나 앞당겨 끝나는 기적이 창조되었다.

그때 만민대개의 글밭을 우리 러며 그렇게도 기뻐하던 리성길 동무는 민중의 대극상을 당하여 때 석대산에 피눈물을 쏟

으며 아버지장군님을 목놓아부 르고 또 불렀다. 그리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기 위한 사업에 도당의 일 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산 악같이 불려일으켰다.

그는 당조직들을 발동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 초상화와 영상이미술품 60여상을 모자이크벽화로 훌륭히 형상 하여 모시도록 하였으며 당의 기본부조와 영성탑을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여 모시도록 하였다. 또한 많은 혁 명사적자료들을 발굴고증하고 종합체계화하여 혁명전통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양덕군당위원회의 해당 일군 들을 정성리 반혁명에 한 이야기 가 있다.

삼거리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연구실 총감공사를 한 정형이 보고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험간한 일군들이 많은 일꾼 들이 발목을 잡는 속에서 보고 를 받는데 그칠수도 있었지만 그는 달랐다. 지체없이 현지에 내려가 공사정형을 논로 확인 하고 시공에 있어서 부족점을 지적 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고 떠나던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제3작업반 분원구실에 가보라고 하였다. 장마피해를 입어 길이 온통 거친 돌탕이여서 차가 못들어가는것은 물론 길을 형성도 못되 었다.

그러나 리성길동무는 그 험한 10리길을 한사코 걸어서 들어 갔다. 그리고 분원구실의 면모 를 일실시할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주었다.

그것은 군과 의 당선전일군 들에게 수형질사용위로 전진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드림 을 구현해나가야 한다는것을 충 경없이 깨우쳐주었다.

장마철에 모심사업에서 사소한 빈틈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며칠째 장도 휴식도 없고 여러

### 실력과 원칙으로 사상

사업의 대를 세운 일군 과 혁신성기 등 그가 당의 은정속 에 김일성총장대학에 대한 때부 러 리용한 책들은 종류가 다양 했고 책들마다에는 진지하게 학 습하고 내용을 파고든 흔적들이 력연되었다.

그는 당선전일군으로 일해온 전기간은 물론 불치의 병으로 쓰러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손에

군을 돌던 때의 일이었다. **《대 그날의 항일유격대정치 이기기 힘들어하는것을 본 리성 길동무는 문득 항일유격대원들의 행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다. 그는 피어던 항일전의 나날 투사들은 계속되는 행군에서 정 피곤을 이기기 힘들 때에는 기 회나출을 손에 잡고 서로 이끌었다고 하면서 말하였다. 《대 그날의 항일유격대정치 이기기 힘들어하는것을 본 리성 길동무는 문득 항일유격대원들의 행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다. 그는 피어던 항일전의 나날 투사들은 계속되는 행군에서 정 피곤을 이기기 힘들 때에는 기 회나출을 손에 잡고 서로 이끌었다고 하면서 말하였다. 《대 그날의 항일유격대정치 이기기 힘들어하는것을 본 리성 길동무는 문득 항일유격대원들의 행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다. 그는 피어던 항일전의 나날 투사들은 계속되는 행군에서 정 피곤을 이기기 힘들 때에는 기 회나출을 손에 잡고 서로 이끌었다고 하면서 말하였다.》**

### 애려난대도

그날 그날의 항일유격대정치 이기기 힘들어하는것을 본 리성 길동무는 문득 항일유격대원들의 행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다. 그는 피어던 항일전의 나날 투사들은 계속되는 행군에서 정 피곤을 이기기 힘들 때에는 기 회나출을 손에 잡고 서로 이끌었다고 하면서 말하였다. 《대 그날의 항일유격대정치 이기기 힘들어하는것을 본 리성 길동무는 문득 항일유격대원들의 행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다. 그는 피어던 항일전의 나날 투사들은 계속되는 행군에서 정 피곤을 이기기 힘들 때에는 기 회나출을 손에 잡고 서로 이끌었다고 하면서 말하였다.》

책들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학습 한 일군이었다. 그는 사람들속 에서 《열어나가는 사전》이라고 불리며 정도로 각이한 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소유하고 사 상사업공제에 매우 밝았기때문 에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전 반사업에 당의 의도에 맞게 대 가 있게 내일수 있었다.

삼광당에서 내려온 한 일군이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 회이후 그의 일군됨됨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된 계기가 있다. **《아는 몸으로 역에 나와 대회 에 올라가는 도당의 당사일군 들을 비애해주고 일에 파문하였던 그는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연설을 먼저 자자구 깊이 학습한데 기초하여 사상공제의 출발지점을 든든 히 차지하고 사상의 포문을 열 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앞질러 세워놓았다. 도의 특성에 맞게 석탄공급부분, 농업부분, 전력 공업부분을 비롯한 주요부분들 을 파격적으로 정하고 대회정신을 구현하여 사상일군들이 가지고 나갈 정치사업자료들도 밤을 깨 며 준비해놓았다.》**

### 애려난대도

그날 그날의 항일유격대정치 이기기 힘들어하는것을 본 리성 길동무는 문득 항일유격대원들의 행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다. 그는 피어던 항일전의 나날 투사들은 계속되는 행군에서 정 피곤을 이기기 힘들 때에는 기 회나출을 손에 잡고 서로 이끌었다고 하면서 말하였다. 《대 그날의 항일유격대정치 이기기 힘들어하는것을 본 리성 길동무는 문득 항일유격대원들의 행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다. 그는 피어던 항일전의 나날 투사들은 계속되는 행군에서 정 피곤을 이기기 힘들 때에는 기 회나출을 손에 잡고 서로 이끌었다고 하면서 말하였다.》

어찌 석탄전선만이랴. 열두삼천리법과 남쪽의 대화 학공업기지, 북쪽의 대동력기지를 비롯하여 도당의 주요전구들 마다에서 울헤에도 일군들과 당 원들과 근로자들의 입장을 울려 주는 항일유격대나팔소리가 높이 울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바쳐간 피터는 사명과 열정을 그 무엇으로도 다 해아릴수 없다. **《평생시에는 사람들보다 어떤 간격도 두지 않고 허물없이 생활하였지만 원칙에서는 절 대로 양보를 몰랐다.》**

그날 리성길동무는 긴 말을 하지 않았다. 팔을 걷어붙이고 보고서를 자기가 준비하였다. 그는 나타난 현상을 자신의 사업에서의 공간으로 보고 그후 일군들의 힘을 높이기 위한 원리법칙을 일구어내었다. 필요없 한참고자료도 갖추어주고 임의의 정황을 주면서 글도 쓰게 하였 으며 서로의 협정을 통하여 우 결함을 찾아주었다.

그 과정에 끈기있게 노력도 현저 히 높여져 누구나 팔방미인으로 준비되어갔다.

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당사 일선현장에서 일군들의 실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갔던 그는 사업 에서 찾아볼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었다.

제작된 볼, 도안의 일부 탄광 련합기업소들에서 석탄생산이 처지는 문제를 놓고 대책이 토 의되던 때였다.

평안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 도 셋째도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언을 자대기 로 하여 창조적자극을 시사시켜 나간 그는 묘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해당 탄광련합기업소 들에 담당지도원들로 령방을 무 어 집중적노력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도출한다. 도출시설을 대, 도당직의강연강사들을 인입 하여 그 실효를 배로 높이는것이 었다.

물밑에서는 작전의 결과는 더 할나위없이 좋았다.

목적지향성있게 벌어진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선전선동사업으로 수천척적 학과장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관철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공명을 위한 투쟁으로 부름받은 줄을 뽐내었다. 생산실적이 최저치인 탄광 련합기업소들이 차지하여 일어 서고 도당의 전반적인 석탄생산 에서 새로운 양상이 일목되게 되었다.

어찌 석탄전선만이랴. 열두삼천리법과 남쪽의 대화 학공업기지, 북쪽의 대동력기지를 비롯하여 도당의 주요전구들 마다에서 울헤에도 일군들과 당 원들과 근로자들의 입장을 울려 주는 항일유격대나팔소리가 높이 울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바쳐간 피터는 사명과 열정을 그 무엇으로도 다 해아릴수 없다. 《평생시에는 사람들보다 어떤 간격도 두지 않고 허물없이 생활하였지만 원칙에서는 절 대로 양보를 몰랐다.》

그날 리성길동무는 긴 말을 하지 않았다. 팔을 걷어붙이고 보고서를 자기가 준비하였다. 그는 나타난 현상을 자신의 사업에서의 공간으로 보고 그후 일군들의 힘을 높이기 위한 원리법칙을 일구어내었다. 필요없 한참고자료도 갖추어주고 임의의 정황을 주면서 글도 쓰게 하였 으며 서로의 협정을 통하여 우 결함을 찾아주었다.

그 과정에 끈기있게 노력도 현저 히 높여져 누구나 팔방미인으로 준비되어갔다.

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당사 일선현장에서 일군들의 실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갔던 그는 사업 에서 찾아볼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었다.

제작된 볼, 도안의 일부 탄광 련합기업소들에서 석탄생산이 처지는 문제를 놓고 대책이 토 의되던 때였다.

평안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 도 셋째도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언을 자대기 로 하여 창조적자극을 시사시켜 나간 그는 묘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해당 탄광련합기업소 들에 담당지도원들로 령방을 무 어 집중적노력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도출한다. 도출시설을 대, 도당직의강연강사들을 인입 하여 그 실효를 배로 높이는것이 었다.

물밑에서는 작전의 결과는 더 할나위없이 좋았다.

목적지향성있게 벌어진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선전선동사업으로 수천척적 학과장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관철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공명을 위한 투쟁으로 부름받은 줄을 뽐내었다. 생산실적이 최저치인 탄광 련합기업소들이 차지하여 일어 서고 도당의 전반적인 석탄생산 에서 새로운 양상이 일목되게 되었다.

### 애려난대도

어찌 석탄전선만이랴. 열두삼천리법과 남쪽의 대화 학공업기지, 북쪽의 대동력기지를 비롯하여 도당의 주요전구들 마다에서 울헤에도 일군들과 당 원들과 근로자들의 입장을 울려 주는 항일유격대나팔소리가 높이 울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바쳐간 피터는 사명과 열정을 그 무엇으로도 다 해아릴수 없다. 《평생시에는 사람들보다 어떤 간격도 두지 않고 허물없이 생활하였지만 원칙에서는 절 대로 양보를 몰랐다.》

그날 리성길동무는 긴 말을 하지 않았다. 팔을 걷어붙이고 보고서를 자기가 준비하였다. 그는 나타난 현상을 자신의 사업에서의 공간으로 보고 그후 일군들의 힘을 높이기 위한 원리법칙을 일구어내었다. 필요없 한참고자료도 갖추어주고 임의의 정황을 주면서 글도 쓰게 하였 으며 서로의 협정을 통하여 우 결함을 찾아주었다.

그 과정에 끈기있게 노력도 현저 히 높여져 누구나 팔방미인으로 준비되어갔다.

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당사 일선현장에서 일군들의 실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갔던 그는 사업 에서 찾아볼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었다.

제작된 볼, 도안의 일부 탄광 련합기업소들에서 석탄생산이 처지는 문제를 놓고 대책이 토 의되던 때였다.

평안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 도 셋째도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언을 자대기 로 하여 창조적자극을 시사시켜 나간 그는 묘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해당 탄광련합기업소 들에 담당지도원들로 령방을 무 어 집중적노력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도출한다. 도출시설을 대, 도당직의강연강사들을 인입 하여 그 실효를 배로 높이는것이 었다.

물밑에서는 작전의 결과는 더 할나위없이 좋았다.

목적지향성있게 벌어진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선전선동사업으로 수천척적 학과장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관철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공명을 위한 투쟁으로 부름받은 줄을 뽐내었다. 생산실적이 최저치인 탄광 련합기업소들이 차지하여 일어 서고 도당의 전반적인 석탄생산 에서 새로운 양상이 일목되게 되었다.

의 안해 차성숙동무가 혼자서 애 를 먹는것을 보고 운전사가 건 설장에서 립시 빌려온것이였다. **《난 후계 계를 챙기는 버릇 이 생기는가 했소. 그런 사람들 이 같일이 어딘가 있는것을 당 신도 잘 알지 않소.》**

그는 운전사를 통해 드릴을 빨리 건설장에 가져다주도록 하였다. **《우리는 여기에 그가 생을 마 치기 얼마전의 일을 다시금 눈 물결에 삼키하지 않을수 없다. 죽어도 우리 당사장전지를 철**



본사기자 리정수

옹성같이 다지기 위한 길에서 순직일념이고 매일같이 사무 실을 출근하던 그가 더는 운신 할수 없고 집에서 후수상태에 빠져있던 때의 일이었다. **《죽조부유초소에 서있는 아들 에에서 어떤 애감이 들지는지 전하기 어려웠다.》**

그렇지 않아도 딸의 대학공부 와 아들의 군사복무에 지장이 된다고 질타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던 남편이었던 애내가 어쩔줄 몰라하는대 놀람게도 그 순간에 가까스로 의식을 차린 리성길동무가 온몸의 기력을 모 아 전하기에 이르렀다. **《진이야 여기 사무실이다! 아버지 사무실에 있다!...》**

그것은 물론 비록 죽어도 넘 단은 사회주의수호전의 또 하나 의 전초선인 당사장전선을 뜨지 않으려는 신념의 위엄이었고 어 떤 혁명적투쟁도 수형질사용위 의 한걸음 함께 꽃피어 열매가 되고 아들에게 한 볼같은 심장의 호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성길동무의 사업정형에 대하여 헤아려보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그의 심장은 멎어도 그의 료카기 합쳐 우리 당선전일군들이 더 높이 울려가는 항일유격 대나팔소리와 함께 오늘도 새차 게 고동친다.

본사기자 리정수

# 농작물비배관리를 더 완벽하게 전담하자

## 모내기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 황해남도 농촌들에서

황해남도에서 10일 현재 강병이발부처집을 앞세우며 세벌김매기를 적극 다그치는 동시에 많은 면적의 논에비배 매기를 외따다 끝낸 기세로 성과 계속 확대되고있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내기전투를 끝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김매기전투를 계속 힘있게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농촌당조직들이 직판선전물과 포진정제선동을 김매기를 다그쳐 끝낼때 대한 내용들로 일관시키고 협동반마다에서 집중적이 며 련속적인 선전선동공세를 들어냄으로써 김매기전투분위 기를 계속 고조시키고있다.

도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호농농약을 시, 군들에 공급해준데 맞게 모든 협동농장 들에서 농약을 과학기술적으 로 쳐서 길을 따르며 집중적으 로 모내기할 한 논들의 특성을 잘 알고 농장원들이 책임 적으로 농약을 지도하고있

다. 김매기전투에서 교원들이 현실에 들어가 기술적특 성을 농장원들에게 잘 알려주 고 그에 맞게 농약을 지도하고 함으로써 김매기효과를 더욱 높이고있다.

당면한 김매기전투에서는 논에비배매기를 선함으로 끝낸 강령군이 앞장에서 내리타고있다. 군에서는 모든 협동농 장들이 기계김매기와 손김매 기를 적절히 배합하여 일정계 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게 하고 있다. 아버지장군님을 일터에 모시었던 내동협동농장을 비 롯하여 삼봉, 읍협동농장들이 김매기를 잘하고있다.

안악, 신천, 은천, 삼천군에 서도 김매기를 붙이 반씩 나 게 다그치고있다. 이 군에서는 먼저 강병이발부처집을 선 행시키고 거기에 김매기를 바 싹 따라세우는것과 함께 령방 을 집중하여 논김매기를 질적 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협

## 세벌김매기성과 계속 확대

### 원도에서

강원도인의 협동농장에서 강병이발김매기에 령방을 집 중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도에서는 우맹에 의한 김 매기방법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모내기전투를 끝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김매기전투를 계속 힘있게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농촌당조직들이 직판선전물과 포진정제선동을 김매기를 다그쳐 끝낼때 대한 내용들로 일관시키고 협동반마다에서 집중적이 며 련속적인 선전선동공세를 들어냄으로써 김매기전투분위 기를 계속 고조시키고있다.

도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호농농약을 시, 군들에 공급해준데 맞게 모든 협동농장 들에서 농약을 과학기술적으 로 쳐서 길을 따르며 집중적으 로 모내기할 한 논들의 특성을 잘 알고 농장원들이 책임 적으로 농약을 지도하고있

다. 김매기전투에서 교원들이 현실에 들어가 기술적특 성을 농장원들에게 잘 알려주 고 그에 맞게 농약을 지도하고 함으로써 김매기효과를 더욱 높이고있다.

당면한 김매기전투에서는 논에비배매기를 선함으로 끝낸 강령군이 앞장에서 내리타고있다. 군에서는 모든 협동농 장들이 기계김매기와 손김매 기를 적절히 배합하여 일정계 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게 하고 있다. 아버지장군님을 일터에 모시었던 내동협동농장을 비 롯하여 삼봉, 읍협동농장들이 김매기를 잘하고있다.

안악, 신천, 은천, 삼천군에 서도 김매기를 붙이 반씩 나 게 다그치고있다. 이 군에서는 먼저 강병이발부처집을 선 행시키고 거기에 김매기를 바 싹 따라세우는것과 함께 령방 을 집중하여 논김매기를 질적 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협

## 논벼뿌리활성을 높인 비결

### 신계군 룽수협동농장에서

고 지난해 정보당 논벼를 다 른 작업반들보다 21이나 더 면 제 10, 6작업반의 농사 경험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분석 해보았다.

그 과정에 작업반들에서 초 무연탄버럭으로 논물의 온도를 높인 사실에 주목을 돌리 었다.

지난해 이 작업반들에서는 모내기할 한 다음 초무연탄 버럭을 한대내어 정보당 50kg이상의 비료를 했다. 이렇게 하니 태양열에 의해 논물의 온도가 더 높아진것 은 물론 린, 카리, 망간, 규소 등 여러가지 영양원소들이 보충되어 논벼초기생육이 좋 아졌다. 그리하여 논벼 정보 당 수확고를 다른 작업반들 보다 높일수 있었다.

초무연탄버럭을 농사에 효과있게 리용하는데 알목 중수의 비비가 있다. 이런

대의 비료가 빨리 마르지 않아 효능 이 더 잘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작업 반들에 나간 농장 원들이 이 비료의 특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서 시비 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모든 농장원들이 비 료추기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알목중수의 중요한 예비 의 하나가 농사를 과학기술 적으로 짓는데 있다는것을 알게 된 농장원들은 영양행 상을 키워내는데 맞게 알목 을 토산기화하고 뒤따라 이미 고산기화비료와 티 오크비료를 시비하였다. 따 라서 논벼뿌리활성이 높아 지 초기생육이 좋아지게 되 었다.

이 농장의 현실은 실정에 맞는 과학적농법방법을 받 아들일 때 논벼의 초기생육 을 좋게 할수 있다는것을 보 여준다.

본사기자 김창길

## 은을

### 넌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갑자농사를 잘하자면 영농사업을 철저히 과학화 하여야 합니다.》**

대홍단군 신흥농장에서 갑자포전에 대한 들취추 치질이 시작된 다음날 아침이 었다.

자막대기를 들고 들취추치 질을 한 포전의 고풍김이를 해보며 들취추치질이 가지는 중 요성을 원리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서 제4작업반의 경험에 이야기하였다.

제4작업반은 다른 작업반 들에 비해 토심이 깊지 못하 고 해발고도가 높았으므로 하 여 갑자농사를 짓는데 매우 불리 하였다.

하지만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란 없다는 각오로 분발해 나갔다. 작업반원들모두가 합 심하고 투히는 트랙토르운전

## 은을

### 넌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갑자농사를 잘하자면 영농사업을 철저히 과학화 하여야 합니다.》**

대홍단군 신흥농장에서 갑자포전에 대한 들취추 치질이 시작된 다음날 아침이 었다.

자막대기를 들고 들취추치 질을 한 포전의 고풍김이를 해보며 들취추치질이 가지는 중 요성을 원리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서 제4작업반의 경험에 이야기하였다.

제4작업반은 다른 작업반 들에 비해 토심이 깊지 못하 고 해발고도가 높았으므로 하 여 갑자농사를 짓는데 매우 불리 하였다.

하지만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란 없다는 각오로 분발해 나갔다. 작업반원들모두가 합 심하고 투히는 트랙토르운전

## 넌

### 은을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갑자농사를 잘하자면 영농사업을 철저히 과학화 하여야 합니다.》**

대홍단군 신흥농장에서 갑자포전에 대한 들취추 치질이 시작된 다음날 아침이 었다.

자막대기를 들고 들취추치 질을 한 포전의 고풍김이를 해보며 들취추치질이 가지는 중 요성을 원리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서 제4작업반의 경험에 이야기하였다.

제4작업반은 다른 작업반 들에 비해 토심이 깊지 못하 고 해발고도가 높았으므로 하 여 갑자농사를 짓는데 매우 불리 하였다.

하지만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란 없다는 각오로 분발해 나갔다. 작업반원들모두가 합 심하고 투히는 트랙토르운전

## 넌

### 은을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갑자농사를 잘하자면 영농사업을 철저히 과학화 하여야 합니다.》**

대홍단군 신흥농장에서 갑자포전에 대한 들취추 치질이 시작된 다음날 아침이 었다.

자막대기를 들고 들취추치 질을 한 포전의 고풍김이를 해보며 들취추치질이 가지는 중 요성을 원리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서 제4작업반의 경험에 이야기하였다.

제4작업반은 다른 작업반 들에 비해 토심이 깊지 못하 고 해발고도가 높았으므로 하 여 갑자농사를 짓는데 매우 불리 하였다.

하지만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란 없다는 각오로 분발해 나갔다. 작업반원들모두가 합 심하고 투히는 트랙토르운전

혁명군가에 발맞춰 조선속도창조의 앞장에 서리

투쟁의 노래 강제정신창조자들의 심장을 쫓게 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강도사람들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큼니다.》

해방원에서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이 성황리에 편일 진행되고있다. 공훈국가합창단의 진취적인 공연활동으로 온 자강도가 혁명열, 투쟁열로 끓고있다.

거리와 마을, 직장과 가정들에서 사람들은 방사로의 일제사격처럼 가슴후련하고 최후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두고 이야기꽃을 피우고있다.

공연장소로 오가는 공훈국가합창단의 버스행렬에 손을 저어주는 도의 일군들, 강제시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감지 못해 하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랴.

지난해 6월의 골짜기는 영광과 크나큰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았는데 최고사령부 나팔수 공훈국가합창단이 찾아왔으니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 해만지는 경에 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감격을 감지 못해하고있다.

지난해 강제시를 찾으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뜻깊은 연설도 하시고 모란봉악단의 성대한 공연무대를 펼쳐주시니 그때로부터 어느덧 1년이 되어온다. 그 1년은 도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경에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뜻을 받들어 새로운 비약과 혁신, 기적을 일으킨 지대한 위훈창조의 나날이었다.

도의 기계공업부문 공장들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속에 현대화, 무인화의 경쟁열풍이 일고 최첨단들과 전이 벌어져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견주는 우리 식의 세계품개발에서 눈부신 비약이 일어났다.

공연장소에서 도의 한 일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란봉악단의 공연무대를 펼쳐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은 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인민들을 분발케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1년도 못되는 사이에 강제시는 사회주의선경담에 더욱 환하고 아름답게 변모되었습니다.》

장자강기슭을 따라 유보도가 새로 뻗어나갔고 장자강에 대형분수가 세워졌다.

수개월동안에 장자강인민유원지, 버섯공장, 잔디연구소가 일떠섰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문화휴식터들이 곳곳에 꾸러졌다. 해빛이 번쩍거렸었습니다. 오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보게 되니

경에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사는 기계공업부문 로동계급의 긍지와 보람은 정말 끝이 없습디다.》

필승의 신념을 억척같이 다져주고 회열과 광만을 안겨주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은 수많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공연종목들 가운데서 특히 흥성 2중창과 합창 《자강도는 내 나라의 자랑도 일세》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흥분할 줄을 모르니 건설하여 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자강도가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더 많은 누에고치생산으로 자강도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시려 놓고 힘찬 뽕밭에도 오르시었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에도 자강도를 찾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불후의 로고를 들이켜 보며 솟구치는 격정을 감지 못하고있다.

공연을 보며 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인민들이 눈시울 적시는것은 흥분들이 남기는 깊은 여운과 흥분때문만이 아니다.

인공언덕에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기 해주시고 모란봉악단의 공연무대에 자강도에 펼쳐주시었으며 공훈국가합창단의 이번 순회공연도 제일먼저 자강도에 오시게 하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때문이다. 하기에 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정을 이어가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천사들 드리고있다.

지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보고나면 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인민들의 가슴속에는 산도 떠올리고 바다도 메우고 전철길도 웃으며 헤칠 만만한 배심이 꼭 차있다.

용기백배, 기세충천한 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인민들이 이제 당의 병정로선을 관철하고 인민생활을 꽃피우는 투쟁에서 일으키게 될 기적과 혁신, 대비약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생각만 하여도 가슴은 환희로 부풀어오른다.

공훈국가합창단의 씩씩하고 우렁찬 혁명군가에 뜻과 승격을 맞추며 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인민들은 다시금 분발해나가고있다.

혁명군가를 높이 부르며 더 높은 목표, 더 아름다운 리상을 내세우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새로운 기적과 혁신,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려는 자강도로동계급과 인민들의 투쟁기세를 하늘을 찌를듯 높다.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은 경에하는 원수님께 일련달심충정을 다해가려는 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추동하고 있다.

글 특파기자 동세웅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대학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참다운 인간관계, 인간도덕의 기초이며 자기자신보다 남을 위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은 인간의 고상한 도덕의리입니다.》

지난해 봄 어느날이었다. 대동군의 어느 한 농장으로 급히 달려오는 한 처녀가 있었다. 농장의 마을에 집을 두고있는 그는 평성교원대학의 교원학파에서 공부하던 최정심동무였다. 어느덧 집앞에 이른 그는 방안에 들어서며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정심동무가 동생들의 생활 때문에 발목이 잡혀 공부할 중도에서 그만둔다면...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 동안 부모들이 바라던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꼭 교단에 서야 되겠는데...》

순간 최정심동무는 《후》하고 흐느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대학의 축구담당교원이었던 것이다.

《우린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놓으십시오. 동생들은 우리가 잘 돌보겠으니 정심이 걱정까지 공부하도록 잘 도와 주십시오.》

농장의 한 초급일군의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최정심동무는 곁에 서있던 동생들을 품에 꼭 안으며 말했다.

《우린 결코 외롭지 않단다.》

그러는 그에게로 교원장 만일동무가 다가왔다.

그는 초급일군이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마저 잃은 정심동무의 가정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후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들에게 동무를 잘 도와줄것을 호소했다고, 그리고 모두의 성의가 비친 물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최정심동무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말없이 서있었다. 이윽고 방 안에서 나오는 초급일군에게서

군에게로 다가간 그는 나직이 말했다.

《제 생각이 잘못입니다.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최정심동무는 동생들과 마을사람들의 배려속에서 대학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가 대학에 들어섰을 때였다.

뜻밖에도 일군들과 교원들, 학생들이 펼쳐나 그를 따르듯이 맞이하였다. 그에게 학용품과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이 단정하게. 최정심동무는 눈물로 흐르는 눈물을 닦을새 없이 모두에게 머리를 깊이 숙여 말했다.

《저 하나가 뭐라고... 고맙습니다.》

그후 최정심동무의 학습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

일군들과 교원들을 비롯한 집단의 따뜻한 정과 진실한 방조속에 대학과정을 마친 그는 지난 4월 소년대로 교단에 서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대학에서는 대학생들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끄는 기풍이 더 높게 발휘되었다. 대학에서는 초급청년동맹위원회를 비롯한 근로단체 조직들을 발동하여 무엇보다도 대학생들과 가정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도록 하였다.

구급식, 장학금, 리진동무 부를 비롯한 부모없는 대학생들과 아버지가 조국보위의 길에서 희생된 함양동무를 비롯한 대학생들이 마음놓고 학습에 전심하고있는것도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들의 다심한 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대학의 학생들속에서는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고마운 사회주의 학습에 열중하면서 전쟁로병들과 영예 군인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 인민군대헌호사업에도 뜨거울 마음과 지성을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날을 따라 더욱 꽃피어가고있다.

본사기자 현경철

교정에 넘치는 미덕의 향기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 문화예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 창조자, 향유자도 인민대중입니다.》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이 편일 성황을 이루며 진행되고 있다.

오전과 오후 한차례씩 진행되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 활동으로 도내에서 강제시에 이채로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

이른 새벽부터 흥성거린다

앞장에서 만들어 나가는 최고사령부 나팔수인 공훈국가합창단을 맞이한 강제시는 지금 명절분위기로 흥성거리고있다.

기계공업부문의 로력혁신자들을 태운 자동차들이 편대를 짓고 도로를 오가고 교통보안원들은 로력혁신자들을 태운 자동차행렬에 우선적으로 길을 내주고있다.

강제시의 인민들이 기계

업부분 로력혁신자들이 손저어 반겨주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보지 못하면 일생 후회가 된다고 하며 수많은 강제시 인민들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해방원을 찾았었다.

공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높아가고있다.

공연이 진행되고있는 해방원

산촌들에 펼쳐진 이채로운 풍경

평안남도의 심산산골마을들에 어촌의 바다향기로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물고기를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대흥군, 맹산군을 비롯한 산간지대 군들에 편일 달려오갔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도에서는 산간군들과 육역원, 애육원, 중등학교들에 물고기를 보내주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민들듬이 짜고들었다.

수산사업소, 수산협동조합별, 어선별사회주의경쟁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수산성적으로 제일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는 혁신적성파가 이룩되었다.

문덕, 한천, 가마포수산사업소, 평원수산협동조합 등 도의 수산부문 어로공들은 건일불발의 의지와 생산열정전으로 기항당 어획고를 최대한 올리면서 편일 만선의 배고픔소리를 높이 울리었다.

포구들에 전개된 가공기지들도 수산물가공으로 들끓고있다.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과 해당 기업소들에서는 도내 수산사업소들에서 잡아들이는 물고기를 소비지까지 실어다주기 위한 대책도 제때에 따라세웠다.

바다 먼 산촌들에서 신선한 물고기를 받아내고 기쁨에 넘친 인민들과 원아들의 모습을 보며 일군들은 당의 뜻대로 온 나라 방방곡곡에 로동만년소리가 더 높게 울려 퍼지게 하는데 적극 기여할 결의를 가다들고있다.

본사기자

직맹 일군들과 직맹원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 시작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직맹 일군들과 직맹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가 시작되었다.

출발모임이 11일 해산시에 있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장수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모임에서는 최수동 직총중앙

우리 인민보안원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어떤 초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인민들의 행복과 리상을 쫓아주시는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며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시군인민보안서 아래단위 일군인 조영철동무를 두고 해당 지역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물론 마을의 로인들로부터 소학교의 학생들모두가 우리 인민보안원이라고 정답야 부른다.

가막천에 중소형발전소건설이 한창일 때였다. 읍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이다보니 인제구조물에 쓰일 세멘트를 운반해오는 일이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섰다. 이때에도 조영철동무는 스스로 이 파제를 맡아안고 도의 여러 단위를 오고가며 끝내 필요한 세멘트를 해결해냈다.

해마다 주변협동농장들에서 소석회생산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조영철동무는 인민보안원들과 함께 수습리나 떨어진 곳에

우리 인민보안원

우시군인민보안서 아래단위 일군인 조영철동무와 인민보안원들

서 두렵게 쌓인 눈을 쳐내고 많은 석회석을 캐내어 농장들에 보내주었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몇해전 어느 한 협동농장에서 돌전기재부속품이 걸려 애를 먹고있을 때에도 그는 립산사업소와 수백리 떨어진 공장까지 찾아가 끝내 부속품을 해결해오도록 농장일군들과 트랙터도 운전수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가막천을 가로지르며 일떠선 조물령 1, 2, 3, 4호다리가 있는 곳에는 몇해전까지만 해도 정경다리, 나무다리가 있었다.

장마철이면 큰물로 길이 막혔고 겨울이면 얼음판으로 변하여 차들의 운행에 지장을 주던 곳에 중앙화물자동차도 지나갈수 있게 콘크리트다리가 놓이게 되는데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받들어 아갈라라 애는 조영철

우리 나라와 라오스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 기념행사

우리 나라와 라오스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

우리 나라와 라오스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5일 연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행사장에 있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고있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조선로동당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가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조선에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강화되고 사회주의 조국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말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고있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조선로동당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가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수리야 대통령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선임장 봉정

바사르 알 아사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9일 장명호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선임장을 봉정하였다.

선상에서 대사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바사르 알 아사드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정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이국선 박선원들의 경축집회

이국선 박선원들의 경축집회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외국 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가 11일 성대히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청진시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성지의 태양상모자이크 벽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집회장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카리타리국선박 《하오관 6》호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우리 나라와 라오스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 기념행사

우리 나라와 라오스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5일 연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행사장에 있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고있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조선로동당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가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와 라오스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 기념행사

우리 나라와 라오스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5일 연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행사장에 있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고있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조선로동당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가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로씨야 특명전권대사 국경절에 즈음하여 연회

국경절에 즈음하여 알렉산드르 제모닌 주재 로씨야방 특명전권대사가 11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봉남부총장, 공석용 위무장 부총장, 심국룡 외교관 사업총국 부총장,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 김진범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

이국선 박선원들의 경축집회

이국선 박선원들의 경축집회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외국 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가 11일 성대히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청진시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성지의 태양상모자이크 벽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집회장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카리타리국선박 《하오관 6》호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우리 나라와 라오스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 기념행사

우리 나라와 라오스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5일 연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행사장에 있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고있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조선로동당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가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와 라오스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 기념행사

우리 나라와 라오스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5일 연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행사장에 있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고있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조선로동당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가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강권과 전횡은 고립과 규탄을 면치 못한다

국제적인 반미투쟁은 미국자신이 몰아왔다

오늘 국제사회에서 반미투쟁은 하나의 조류로 되고있다. 반미투쟁자들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지어 전략적동맹자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반미투쟁이 그치지 않고있다. 최근년간 미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나라들에 있는 대사관과 영사관들을 폐쇄하고 업무를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사태를 빈번히 일으켰다. 외교대 표부를 폐쇄하고 자국민들에게 격화면 전세계적인 리허닝을 내리는 조치도 때때로 취하곤 하였다. 한것은 국제적인 반미투쟁이 너무도 거세차기때문이다. 세계에는 200여개의 나라들이 있지만 반미투쟁에 직접하여 해당 나라 주재 대사관을 폐쇄한다 어떤다 하고 소동을 피우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하기는 제 잘난척하며 곳곳에서 못된짓만 골라하니 사람들이 좋게 볼리 만무한것이다. 세상에 미국만큼 제 잘난척 하는 나라는 없을것이다. 하지만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부르짖으며 《영화의 사도》로 등강하는 미국의 처지는 반대로 가려한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이렇게 연설하였다. 《나는 이라크전쟁을 궁지없는 형태로 종결시켰다고 맹세하였으며 병사들은 가슴을 펴고 이라크를 떠났다. 이라크사람들에게 미례를 개척할 기회를 주었다는것을 가슴에 새기겠다.》 이라크를 축대발로 만들어놓은 저들의 범죄적악행을 감추어놓고 비난보자기를 뒤집어씌우는 말을 했던 그의 연설직전에 이라크에서는 폭탄테러로 한개편에 100여명이 희생되는 비극적참사가 빚어져 미국에 저주를 보내는 이라크인들의 반미감정은 폭발전야에 이르렀다. 리비아사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리비아를 어떻게 짓궂게버렸는가는 잘 알려져있다. 오바마는 백악관에서 발표한 그 무슨 내전종결과 관련한 특별성명에서 《리비아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날》이라더니, 이 나라 인민의 《김고 고롤스러운 장이 끝났다.》느니 뭐니 하고 너스레를 떨었다. 당시 미국부장관 힐러리는 그것을 《리비아가 미래를 향해 전진할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떠들었다. 그러한 리비아에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있는가. 미국이 내전이 끝났다고 선포한지 3년이 되었지만 이 나라 곳곳에서는 총소리가 그치지 않고있으며 서로의 주장을 내내며 다투는 류형이 그 절체였다. 리비아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이며 2012년에 미국영사관들을 격사하여 벌어진 미국대사를 포함한 4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사태의 상황만 해도 살펴볼다. 얼마전에는 이곳에서 군부대들사이의 중무기와 포돌, 지어는 비행기를 이용한 대규모적인 전투가 벌어져 수십명이 죽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리비아에서의 안보상우려와 관련하여 파라볼스(리비아의 수도)주재 자국대사관과 영사관을 폐쇄하고 모든 외교관들을 철수시켰다. 아랍국가들, 알제리도 대사관문을 닫고 외교관현원을 철수시켰다. 지어 리비아주재 미국대사가 가족(여행)을 한다고 하면서 이 나라에서 출항을 못한다. 실례는 이렇다. 국제적으로 미국의 손길이 뻗었던 나라들에서 《영화》와 《연정》,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정세가 조성되어 미국을 규탄배격하는 목소리가 급속히 높아지고있다. 전례없이 파급되는 반미열풍은 누가 몰아왔는가. 그것은 미국이 스스로 몰아왔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미국의 장악과 전횡, 내정간섭책동이 가져온 응당한 귀결이다. 미집권계층들은 미국은 특수한 나라이며 다른 나라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로골적으로 떠들고 있지만 사태는 정반대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저들은 아무짓이나 해도 일가 미배를 향해 전진할수 있는 새로운 나라들이 있다고 하면서 《혁명》을 하려드는데 미국을 누가 꼽게 보겠는가. 국제법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남보고 이래저래라 하며 혼시할하는 미국이 사람들을 침을 뱉고있다. 인권《문제》만 죽고보아도 미국은 저들의 한심한 인권실태는 당반부에 올려놓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허물》을 만들어보려고 매해 《인권보고서》를 만들어내고있다. 쓸데없이 남의 집 잔치에 감동이라 배놓이라 하는 식으로 내정간섭행위를 일삼고있는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제재》를 휘두르다가 무력침공을 서슴지 않고있다. 국도의 파편정성과 오만성이 체질화된 미국대문에 지구상에서는 어느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으며 비극적참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미국잡지 《뉴스위크》가 《바로 이래서 전세계가 미국을 싫어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은적이 있다. 《어느때든 미국의 지도자는 저들의 반대쪽에 있는 어느 나라를 지명하여 《국가개조》가 필요하다고 큰소리로 주장한다. 리우는 해당 나라의 정치적체가 미국의 가치관과 어긋나고 안정보장상 위함으로 뒤가때문이다. 보도물들고 이 합창에 합세하니 국민들도 거기에 맞춰들어간다. 이러한것을 그 나라는 미국의 미사일이 우박처럼 쏟아

아지게 된다. 해당 나라의 《공군》이 국외로 도망치면 대신 누군가가 권력을 쥘다. 처음에는 사태가 크게 개진된듯이 보이지만 조만간 현지의 사람들은 미국의 존재에 대해 불만을 품기 시작하며 미군병사들을 살해한다. 총격을 받은 미국인들은 분노의 목소리로 미군철수를 논하기 시작하며 최종적으로는 미군철수가 현실화된다. 이로써 《구경》만 볼판다.》 잡지는 미국이 이라크를 짓궂게 놓고 이 나라에서 류형참극이 꼬리를 물고 벌어져도 못본척 하고 또 다른 나라를 《적》으로 삼고 짓궂게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사상사들이 미국을 싫어한다고 못박았다. 근거없는 소리다 아니다. 미군은 2011년말에 철수하였지만 이라크전쟁은 끝났것이 아니라. 그후에도 수백명이 목숨을 잃고 사망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나라에서는 교과과정이 무서운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미국이 주변국가들을 무력으로 짓궂게 놓은 사실앞에서 세상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사실들은 미국이 이 세상에 없다면 지구상에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가 보다 빨리 도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오늘의 밝은 세상이 미국과 전쟁이 없는 나라는 존재한다는것 자체가 인류의 수직이다. 미국은 세계가 미국을 왜 싫어하는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미국이 강권과 전횡을 일삼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강권과 전횡, 부당한 내정간섭책동이 반미투쟁을 부르는 도화선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리 현 도

여러 나라 단체 성명 발표  
영국조선친선협회가 판문점구역에서 감행되는 미제침략군의 적대행위를 규탄하고 5월 2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판문점은 조선분열의 상징인 동시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으로서 지미의 패배를 보여주는 증경이다. 우리는 조선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노르웨이, 단미치코, 이탈리아까지 《유엔군사령부》에 인입시키려 하는 미제의 책동을 규탄한다. 이 교활한 책동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국제적동맹》을 만들어내자는 옹호한 것이다. 판문점 회의장구역을 대형철거장대를 세워놓는것은 극악한 도발행위이다. 우리는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도발행위를 당당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또한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모든 침략무력을 조선전에 철수할것을 요구한다. \* \* \*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재 사상연주소가 최근 판문점에서 미군측의 불순한 도발행위를 규탄하여 5월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다. 미제침략자들은 군사분계선에 확성기를 들고나와 각종 명목의 《통지문》을 일방적으로 불어거나 도적놈처럼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봉투를 슬그머니 군사분계선에

일본은 레일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 나라 속담에 처지고는 못산다는 말이 있다. 죄를 지으면 불안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데로 부터 애초에 죄를 짓지 않아야 하며 또 지은 죄는 허심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교훈적인 말이다. 그런데 일본에는 아마도 이와 같은 속담이 없는 모양이다. 그렇기 없다면 야 어떻게 과거에 저지른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해 이처럼 변변할수 있으며 국제사회앞에서, 인류의 망심앞에서 머리를 들고 살수 있던 말인가. 최근시기 일본이 과거범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실례 경악하지 않을수 없다. 최근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인 오사카시장 하시모토가 기자회견에서 전면피한 말을 하였다. 국민이 위안부제도를 알수 있게 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니, 역사문제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것을 들었을 때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것은 당연하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를 쉐쳐냈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되는 야스쿠니전차참배만 보도도 과거침략력과 범죄행위에 대한 일본의 립장이 어떤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일본정객들의 야스쿠니전차참배문제 제기될 때마다 국제적저주와 규탄이 비발치듯 하고 국가간 관계까지 날카로와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전차참배가 야스쿠니전차에 무리로 몰려가 참배하는 망동을 부렸다. 참배에는 1989년에 가장 많은 일본의 정객들이 참가하였다. 더우기 간파할수 없는것은 그들이 저들의 야스쿠니전차참배를 공공연히 정당화해나선것이다. 참배에 참가한 일본정객들은 전자사들을 추모하였느니, 일본이 세계평화를 희망하기때문에 야스쿠니전차참배는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소리를 거리낌없이 늘어놓았다. 이 모든 행위를 보면 오늘의 일본이 과거죄악의 역사를 전제 뒤로내버리고 하지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다. 과거 일제의 반인륜적행위는 일본이 생각하듯이 역사가들이나 할 일도 아니며 우긴다고 하여 달라질것도 아니다. 일본의 죄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시효가 있을수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이며 세계가 한결같이 철저한 해결을 기다리는 현안문제이다. 리 철 혁

지금 과거 일제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들이 세계각지에서 계속 드러나고 그에 대한 인류의 분노가 더욱더 세차지고있다. 올해에 들어서면서 중국 김림성문헌판에서는 과거 일제의 침략역사와 범죄적만행들을 보여주는 방대한 량의 문헌들이 새로 공개되었다. 방사들은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을 비롯한 수많은 아시아사람들을 생체실험한 자료들과 함께 일본군이 성노예들을 강제징집하고 《위안소》를 건설한것이 정부의 직접적인 판여에 따른것이였다는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있다. 지난 4월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판에서는 자기 웹사이트를 통하여 일본에 강제연행되었던 중국인로동자명단을 국제보도에 발표하였다. 그인원수는 3만 4 282명에 달하고있다. 지금 중국에서는 종일전쟁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연행되었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장들을 제출하고있다. 지난 5월 30일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는 일본군성노예를 추모하는 비가 제막되었다. 또한 며칠전에는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아시아인간행위가 도모되어 진행되었다.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가족 그리고 성노예피해자지원단체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여러명의 성노예피해자가 회의에서 자기들이 체험한 사실과 당시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하였다. 회의는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정부가 《고노다케》를 계승하고 일본정국이 기초우에서 보다 명백한 방식으로 일본군이 성노예들을 강제징집한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정식 사죄하고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일본은 세계민심의 한결같은 요구와 과거범죄를 반드시 결산하려는 국제사회의 드림없는 의지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일본은 인젠가는 죄를 짓고 있는 절대로 살수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체험해볼 것이다. 만일 현 일본정부가 지금과 같은 식으로 한순간을 모면하려 한다면 매일 아니 세월의 끝까지라도 일본의 후예들은 그 책임을 승명으로 짊어진다. 현재의 태도에 일본의 레일이 달려있다. 리 철 혁

폭력문화로 절은 썩어빠진 사회

자국내와 세계도처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죄를 물고 일어나서 총기류범죄는 미국사회의 하나의 《폭력문화》로 되고있으며 미국식인권의 반동성이 얼마나 극지에 이르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있다. 얼마전 캘리포니아주에서 2명의 여성이 총기류에 의해 살해되고 13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라크에서 3명의 남성이 칼에 찔려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 《인권》에 대하여 골잘 떠들고있는 미국, 마치도 자기 나라가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사회인듯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횡설수설하는 당국자들, 과연 미국이 인권사도 세계의 존경을 받을만 한 나라인가. 미국잡지 《포린 폴리터》는 미국에서 해마다 총기류에 의해 3만여명이 죽고 20여만명이 부상당하고있다고 적었다. 1년이 365일이라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매일, 매 시간 사람들이 시간을 다투며 총기류범죄의 희생물로 되고있는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건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퇴폐적이며 폭력적인 문화로 하여 사람들을 정신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미국사회의 태도 그자체에 있다. 사람들은 서로 쓰아쓰아내기를 하며 살벌한 화약내가 짙어가고있는것을 자랑스러 여기고있는 나라가 미국이라

고 저주하고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미국식가치관으로 무장한 강도들이 공포로 떨고 불만으로 날을 보내는 국민들을 향해 마구 총질을 해대는것도 마치 못하는것이 바로 미국의 사회태도이다. 미국에서 방영되고있는 TV 오락프로그램에서 80초를 수월적인 살인내용을 담고있으며 매일 황금시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에서 폭력화면이 시간당 평균 8~12번 펼쳐지고있다. 오히려 미국국은 그러한것을 적극 장려하고있다. 그러다나니 서로가 강도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있다. 이처럼 사회에 만연되는 《폭력문화》, 《총기문화》에 걸려서 자라난 미국인들은 남루사로 할것없이 폭력을 일종의 유희, 오락으로 여기며 총기류범죄의 길에 서슴없이 뛰어든다. 미국은 세계최악의 인권불보지일뿐 아니라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가이다. 미국은 힘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간섭과 침략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인권침해를 일삼고있다. 얼마전 2002년때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의 무인기공습으로 하여 평화적주민 2500여명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폭력적인 인간살육만행이 얼마나 극도에 달하였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미 알려져진바와 같이 미국은 《반테러》의 구실밑에 아르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비롯 여러 나라들에 무차별적인

연행하였다. 로씨야에서는 주민들과 청년들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에 힘을 넣고있다. 로씨야에서 전승절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전승절을 맞으며 로씨야의 각지에서는 로병들과 군대와 인민들이 깊은 추억속에 위대한 조국전쟁승리를 기념하는 다양한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루덴대통령은 전승절경축연병식에서 한 연설에서 위대한 조국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69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지만 5월 9일은 아직도 오늘날도 앞으로도 우리의 중요한 명절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로씨야는 파시즘과 투쟁에서 쏘베트인민은 역활에 대한 신성하고 영원불멸한 전리를 언제나 소중히 간직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연병식에서는 로씨야국가 주악되고 행진이 시작되었다. 로씨야국기와 승리의 기발, 군가들을 든 기발총대와 록데공군 명예위병대 그리고 각 종중, 병종부대들과 군사학교생들이 광장을 지나갔다. 연병총대들의 뒤를 따라 현대적인 무장장비와 군사기술기체들이 지나갔다. 또한 전투기, 직승기, 급유기, 수송기 등 각종 군용기들이 붉은광장상을 비행하였다. 력사적인 전승절을 맞으며 로씨야에서 진행된 행사들은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 쏘련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과 영웅적위훈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려는 이 나라 정부와 인민의 지향과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나라의 전략적이익과 안전을 수호하고 강력한 국가건설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로씨야정부와 인민의 노력은 좋은 결실을 맺을것이다. 오늘은 로씨야국경일이다. 강 철 수

조선인민군의 철석의 의지

영국 단체 성명 발표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공개보도를 지지하여 영국조선친선협회가 5월 2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운동은 조선인민군의 총애에 달려있다. 조선인민군은 나라의 자주권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철옹성같이 수호하고있다. 지난 5월 20일 남조선피해회 공판들이 정상적인 경제교류를 수행하던 조선인민군 해군함선들과 평화적인 중국어선들에 무장정 총포사격을 가한것은 엄청난 군사적도발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분별한 도발행위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정경으로 고한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란의 과외관리를 평화의 파괴자 미국을 폭로

이란이 이슬람교혁명군위대 부사령관이 얼마전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이 이슬람교에게서 배척당하고 있는 대대적으로 하였다. 최근 미국정권자가 아프가니스탄행각중에 이 나라 대통령에게 사견전송도 없이 바그라미공군기지에서 슬그머니 들것던 사실을 가파하면서 이것은 이슬람교 세계에서 미행정부원들을 만가게 하라하고 그 어디에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고 그는 폭로하였다. 그는 오늘날 국제적으로 미국의 지위와 지반이 날로 약해지고있으며 미국은 멸망에 가까워가고있다고 조소하였다. 이란군방 및 무력행방이 최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테러

조성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도발행위를 단정 중지하라

이란이 이슬람교혁명군위대 부사령관이 얼마전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이 이슬람교에게서 배척당하고 있는 대대적으로 하였다. 최근 미국정권자가 아프가니스탄행각중에 이 나라 대통령에게 사견전송도 없이 바그라미공군기지에서 슬그머니 들것던 사실을 가파하면서 이것은 이슬람교 세계에서 미행정부원들을 만가게 하라하고 그 어디에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고 그는 폭로하였다. 그는 오늘날 국제적으로 미국의 지위와 지반이 날로 약해지고있으며 미국은 멸망에 가까워가고있다고 조소하였다. 이란군방 및 무력행방이 최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테러

《세월》호참사로 하여 날로 높아 가는 인민들의 분노를 녹찾기 위해 《북의 도발》은 연막극을 꾸며내려고 발악하고있다는것이 밝혀졌다. 우리는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의 원격직접장기 매우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남조선피해회들게 복수의 불바람을 인이고 남조선의 침략과 불의의 아성을 완전히 쓸어버릴 조선인민군의 철석의 혁명적의지를 반영하고있다. 우리는 조선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원대성을 보인다. 【조선중앙통신】

강력한 국가건설을 전략적목표로 삼고

강력한 국가건설은 로씨야정부가 내세운 전략적목표이다. 올해 신년사에서 로씨야대통령 푸틴은 로씨야의 힘을 합쳐야만 강자로 될수 있으며 나라를 전진시키고 공동의 계획과 구상들을 실현할수 있다. 북은 저절로 굴러들어오지 않으며 누구나 제시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이익과 투쟁할 때만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인민은 자기 나라 지도부의 발표대로 사회발전과 민족적단합, 나라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강력한 국가건설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국방력강화에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특히 항공우주분야의 무력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내걸고있다. 지난 5월 블레제코우주발사장에서 운반로켓 《로코트》를 쏘올렸다. 3개의 군사위성을 탑재한 운반로켓은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 로씨야는 국제무대에서 일방주의와 힘의 행사를 반대하면서 주변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로씨야는 얼마전에 가차호스만, 벨라루시와 함께 유라시아경제동맹을 창설하였다. 푸틴은 동맹창설과 관련한 회의에서 유라시아 경제동맹은 성원국들을 근본적으로 새로운 수준에서의 통합으로 이끌어갈것이며 국가들의 자주권을 완전히 수호하면서도 보다 긴밀하고 통일적인 경제협력력을 보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로씨야는 대외경제분야에서 루블결제체제수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얼마전에 중국을 방문한 로씨야의 푸틴대통령은 화제금융분야는 로중협력의 중요한 분야이라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에 민족화해(루블과 인민페)로 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고속철도시험운행 시작  
중국의 신강위트르차치에서 4월 처음으로 건설된 고속철도시험운행이 시작되었다. 이 날 고속열차는 시속 160-277km의 속도로 300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총길이가 1776km에 달하는 고속철도는 올해말에 개통될것이라고 한다. 반테러작전 진행  
로씨야의 다게스탄공화국에서 4일 반테러작전이 진행되었다. 작전과정에 2명의 악질적인 무장악당이 소멸되었다 한다. 이 나라 국가반테러위원회가 이에 대해 밝혔다. 사회경제발전조직  
캄보자정부가 최근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따라 하부구조, 농업, 에너지, 교육, 문화 등 분야에서 대상건설들이 진행되게 된다. 나라에서는 경제를 발

자 연 교 해

아프가니스탄의 바글란주에서 강풍과 폭우, 우박에 의한 피해로 7일현재 100여명이 목숨을 잃고 100여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수 많은 살림집들이 쓰러져 되었다. 또한 많은 도로들이 심히 파괴되어 교통이 마비상태에 처하였다.

전 염 병 예 의 한 교 해

기 베 에서  
기베에서 에볼라바이러스에 의한 인명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4일 세계보건기구는 이 나라에서 328명이 감염되었으며 그중 208명이 사망하였

국가건설을 위한 한 교 해

중국의 교부 대변인 홍희가 6일 기자회견에서 평전식사고 방식을 포기할것을 미국에 요구 하였다. 그는 최근 미국방성이 년례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력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다느니, 군사적투쟁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고있고 중국에 대한 비방장사를 일삼고있다고 단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국가건설을 위한 한 교 해

에집트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  
에집트에서 이브라힘 파라흐 알 씨가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5월말에 있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국가건설을 위한 한 교 해

나라의 경제발전방도에 대해 언급  
우간다대통령 윌리엄 카가라 무페베가 5일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경제발전방도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지금 나라의 경제에서 농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지만 농민의 68%가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